

묘엄 스님 삶 담은 박물관 문 연다

봉녕사, 원적 1주기 맞아 세주묘엄박물관 개관

한국 비구니계의 대강백이며 최고 율사였던 **세주 묘엄 스님**의 삶과 사상을 기리기 위한 박물관이 문을 연다.

수원 봉녕사(주지 자연)는 “오는 12월 19일 묘엄 스님의 원적 1주기를 맞아 ‘세주묘엄박물관’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묘엄 스님이 생전 학인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며, 선방을 조성해 참선을 하던 향하당에 조성되는 세주묘엄박물관은 30여 평 규모



수원 봉녕사(주지 자연)는 12월 19일 묘엄 스님의 원적 1주기를 맞아 '세주묘엄박물관'을 개관한다. 사진은 박물관 입구 전경.

생전 학인들 가르쳤던
향하당에 박물관 조성
각종 편지, 메모, 서적 등
면모 알 수 있는 물품 전시

모의 전시실과 영상실로 구성된다. 영상실에는 스님의 생전 모습을 3D, 4D 기법을 활용해 재구성해 방영한다.

전시실은 스님의 검소했던 삶의 한 권을 알 수 있게 꾸며진다. 주로 스님이 평소 사용했던 물품과 봉안사 결사문, 각종 편지와 메모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출가 초기부터 원적에 들 때까지 스님이 직접 쓴 각종 메모와 글이 그대로 보관돼 눈길을 끈다.

출가 후 성철 스님이 묘엄 스님에게 한국 역사를 정리해 준 기록물과 부친이었던 청

담 스님이 직접 써 준 ‘명심(銘心)’은 혈연을 떠나 당대 선지식들이 묘엄 스님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벽지와 붓투를 잘라 사용한 메모지들에서는 묘엄 스님의 근검 절약했던 성품이 느껴진다.

봉녕사는 “인재봉사와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묘엄 스님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는 데 전시의 중점을 두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을 통해 진실된 수행자의 모습을 알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를 기리기 위한 추모 다례제를 19일 오전 10시 대적광전에서 봉행하며, 11시 30분에는 박물관 개관식을 개최한다. 오후 2시부터는 묘엄스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 <한계를 넘어서>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과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추모음악회를 연다.

한편, 봉녕사는 자체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봉녕’을 통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고 있으며, 다양한 주제의 템플스테이도 개최하는 등 포교 프로그램을 통한 인재봉사를 강조했던 묘엄 스님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일타 대중사 사리탑 봉안

12월 5일 영천 은해사 경내서 13주기 추모 다례제도

동국당 일타 대중사의 사리탑이 12월 5일 조계종 제 10교구 본사 영천 은해사 경내 부도전에 봉안됐다. 또한 은해사는 경내 조사전에서 일타 대중사 13주기 추모 다례제를 갖고 스님의 생전 수행정신을 추모했다.

이 자리에는 원로의원 법흥 스님과 문도대표 해인 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 종회의장 항적 스님 등 5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문도대표 해인스님은 인사말에서 “큰스님의 부도탑을 여법하게 봉안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스님의 가르침을 이 생명



동국당 일타 대중사의 사리탑이 12월 5일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영천 은해사에 봉안됐다.

다할 때까지 받들어 지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일타 스님은 14세의 나이에 출가 수행을 시작해 교학과 율학에 통달했다. 해인총림

율주와 조계종 전계대화상, 원로의원 등을 역임했다. 스님은 지난 99년 세수 71세, 법랍 58세로 열반했다.

순문철 대구지사장

“선거는 희망... 투표하세요”

강화사암련, 투표 격려 캠페인 15개 장소에 현수막 부착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1주일 앞둔 가운데 강화 지역 불교계가 주민의 투표를 독려하고 나섰다.

강화 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선암)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강화군 읍면 곳곳에 15개 투표 참가 독려 현수막을 부착했다”고 12월 7일 밝혔다.

월19일, 꼭 투표합시다라는 내용의 담겨 있다.

강화 불교사암연합회 회장인 선암 스님은 “대통령선거를 맞아 강화 지역의 유권자들이 기권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플래카드를 개제했다”며 “투표는 우리나라 국민의 희망과 염원을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는 적극적인 권리행사다. 이번 12월 19일에는 강화군민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하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선거 현수막에는 '선거가 희망입니다.12

신종일 기자

‘보성선원’ 자비의 김장 기초생활자 270가구에 전달

대구 달서구 송현동 보성선원(주지 한복 스님)의 ‘자비의 김장나누기’가 올해도 어김없이 펼쳐졌다. 보성선원은 지난달 12월 1일까지 달서구 송현1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270가구에 김장 9kg을 제공했다. 이 행사는 2008년 한복스님이 주지로 부임한 해부터 올해까지 5년째 이어졌다.

올해 김장나누기에는 150명이 참여해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순문철 대구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절이 청정환경 지킴이 되자

우리의 옛 사찰에는 사역을 휘감고 흐르는 계류로 인해서 붙여진 이름이 많다. 서울의 화계사, 의왕의 청계사, 인제의 백담사, 아산의 용담사, 괴산의 각연사, 대구의 파계사, 달성군의 용연사, 청도의 적전사, 하동의 쌍계사, 거창의 송계사, 함양의 용추사, 화순의 만연사 등이 그러한 사찰이다. 이들 사찰에 가보면 절 주변으로 맑고 깨끗한 물이 사시사철 흐른다. 물소리만 들어도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것 같고, 물이 넘쳐나니 마음까지 넉넉해진다.

절 이름이야 굳이 계류와 상관없이 붙여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찰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절 주변을 흐르는 물길이다. 그만큼 사찰에서는 절 가까이 흐르는 물을 귀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물

이라는 것이 삼라만상을 기르고 그것들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고, 미기후를 조절하는데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절에서는 수행처가 되기도 하니 어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풍수가들은 예로부터 좋은 물이 있는 곳이 바로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으므로 사역주변으로 물이 흐르고 맑은 물이 고인 소(沼)나 담(潭)이 있는 곳을 찾아 절을 세운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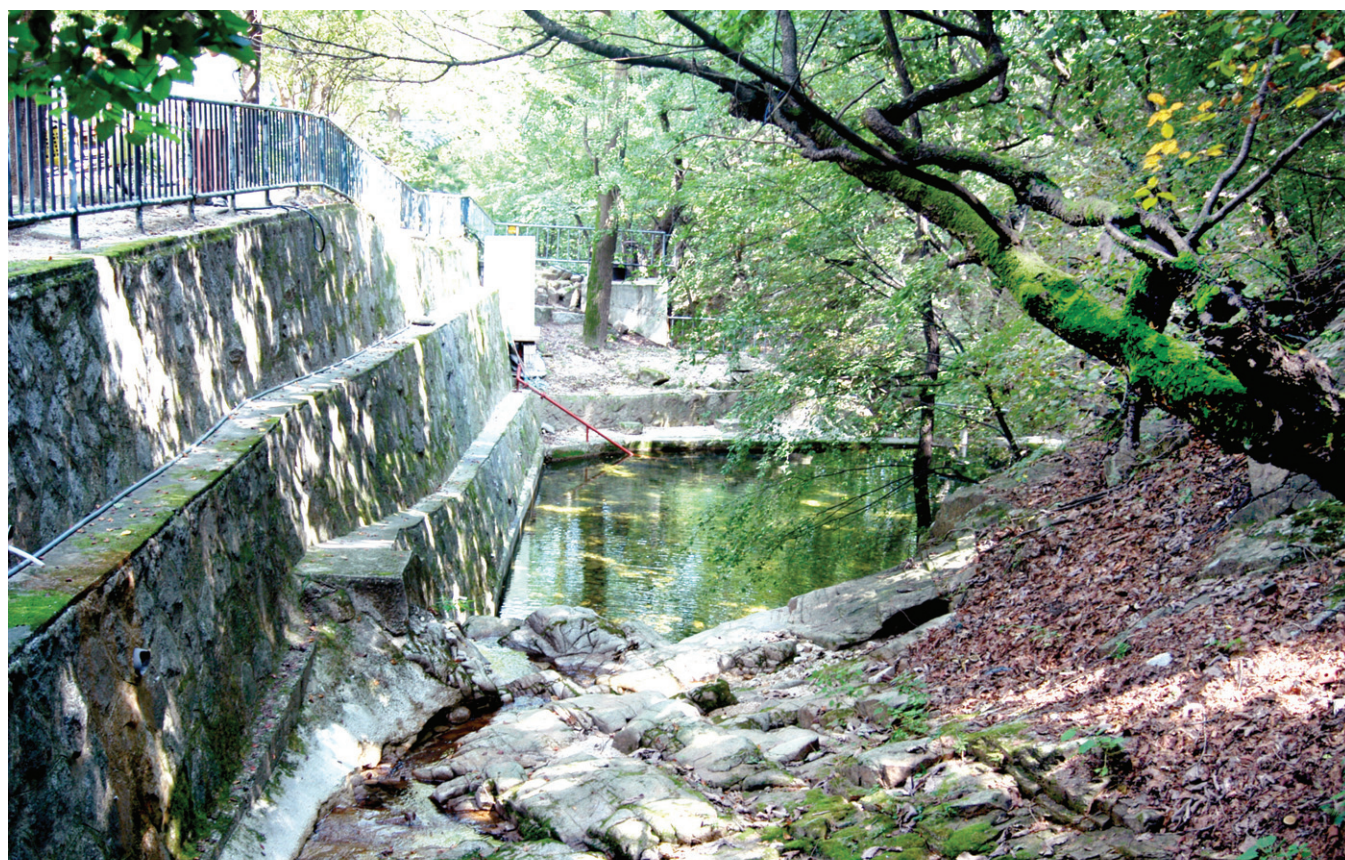
절에서 오랜 세월을 수행해 오신 노스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절 주변을 흐르는 계류는 신성한 존재였다고 한다. 계류에서는 물을 더럽힐 행위는 일절 삼갔으며, 계류의 현상이 바뀔 일은 애당초 하지 않

았다고 한다. 가능하면 물길이 가진 본래적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수시로 정소를 하여 청정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요즘은 사찰에 가보면 절에 인접한 계류가 개발압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사역을 확장하기 위해 계류 가에 옹벽을 쌓아서 사찰과 계류를 단절하고 있음은 물론 보기도 좋지 않고, 전통사찰의 경관적 정체성을 해치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는 생활하수를 정수하지 않고 그대로 계류에 방출하는 경우도 있으며, 쓰레기가 이곳저곳에 방치되기도 한다.

사찰주변에서 성업 중이던 음식점들을 이전하면서 사찰의 청정성을 기대했던 우리들에게 사찰내부에서 일으키는 계류의 오염행위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찰이 예전과 같은 청정환경의 성지가 되기 위해서는 사찰이 숲수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계류에 옹벽을 설치하여 사찰과의 소통이 단절된 모습. 하루속히 원형을 복원하여야 한다. 서울 호사찰



화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사) 호국불교조계종 가사불사 및 점안법회



가사를 조성하여 시주하면 천 가지 재앙이 눈 녹듯 사라지고 만 가지 복이 구름처럼 일어난다.
이런 연유로 가사불사는 으뜸가는 공덕이므로 (각 사암)으로 가사불사에 많은 동참바랍니다. <대장경 수지함>

- 중 정** 운송 (청운사 055-375-0108)
중앙원로위원장 대웅 (봉주암 051-895-6013)
중앙원로의원 해원 (봉광사)
 무진 (용수암 011-864-3369)
 청수, 일파
중앙총회사무처장 옹현 (극락정사 010-2531-1961)
중앙총회의원 수경 (백련암), 범주 (몽물사)
 진우, 진여, 진설, 혜덕
고 문 허중범 변호사 (011-837-1144)
사무총장 박문비 (010-4566-4504)
중앙포교단장 덕인 박근호
포교단총무 법광 (무량사 010-9316-4438)

- 중앙총회의장** 일봉 (관음사 011-508-3100)
포교원장 운암 (문황사 055-573-1745)
교육원장 법기 (백림사 016-748-0048)
호계원장 법정 (법정사 011-567-2626)
호법원장 법산
중앙전통불교문화원장 무항 소현 (010-7757-5078)
중앙선거관리원장 관우 (약사사 010-8859-5312)
 (社)護國佛敎曹溪宗 總務院長 **유심성도**
공동봉행위원장 운암
공동봉행위원장 해명 범우

- 비구니회회장** 해명 범우 (백광사 051-804-3806)
비구니회총무 범중 (법전사 011-9509-1560)
총무부장 도일 정무 (청운암 010-4007-0057)
감찰부장 서암 (약수사 010-6668-2017)
규정부장 법승 (051-516-4494)
재무부장 모항 반아라마 (010-8620-4303)
문화부장 청오 (홍주암 011-514-6310)
감사부장 청타 (관음정사 018-403-1022)

■ **장소** : 부산역 앞 건너편 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 관음정사 (051-468-5657)
 ■ **일시** : 불기 2556년 12월 8일 (음 10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전국 각 교구 총무원장

- 부산교구원장** (총무원 직할)
서울교구원장 법안 (광복사 02-306-7988)
경남교구원장 운암 (문황사 017-551-5143)
천안교구원장 법산 (010-3011-0853)
대구교구원장 보현 (약사사 016-9884-0860)
사천교구원장 무무 현수 (연지암 010-4587-2163)
불무도교구원장 수연 범승 (천황사 010-8988-9672)
경주교구원장 무진 (용수암 011-864-3369)
포항교구원장 해광 (천황사 010-4148-2402)

입증 업체

신라불교미술관

- 불교문화재 기능보유자 제 12-01-01호
- 2010년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대상 미술부문 수상
- 불상, 명화, 개금, 벽화, 단청
- 조성장소 : 부산진구 초읍동 (무상 010-3557-6250)

수봉전자 (불교음향기기특수제작)

- 선거음향, cctv, 노래방, 야외앰프
- http://www.kukjeav.com
- 장소 : 부산 진구 부전동 29번지(부산전자종합시장 1F 7호문)
- 수봉 010-3832-8855

불교승복 원복사

- 가사, 장삼, 두루마기, 손누비, 모시끼끼, 승복일절
- http://www.wonboksa.co.kr
- 장소 : 부산 동래구 온천3동 1276(구, 고속터미널 앞 미남로 약국 2층)
- 금릉 010-3572-4400

* 중지 중풍 및 이념은 홈페이지 참조 (http://bbnr.or.kr)